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조영희¹ · 권영란² · 조 봄³

광주기독교간호대학교¹, 전남대학교 간호대학²,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³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

Cho, Young Hee¹ · Kweon, Young-Ran² · Jo, Bom³

¹Christian College of Nursing, Gwangju

²School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³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 for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es. **Methods:** A methodological study design was used with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a fitness of the modified mode for validity. Cronbach's α coefficients and an alternative-form method for reliability were used.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 was tested with 345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es, residing in G city, J city, and J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 1 to Aug. 2, 2012.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respondents through self reports method and each item had a possible score of 5.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0.0 and LISREL 8.54 programs. **Results:** The 28 items making up the instrument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4 factors: 'Professionalism', 'Activism', 'Coordination competence', and 'Personalism'. These factors explained 63.2% of the total variance. Fitness of the modified mode was good ($\chi^2=1052.30$, RMSEA=.05, GFI=.90, AGFI=.86, NFI=.97, and CFI=.98). The reliability of the PSYNIS was .95 (Cronbach's α). **Conclusion:**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the PSYNIS is useful for efficiently evaluation of the image of psychiatric nurses.

Key Words: Psychiatric nurses, Image, Validity, Reliabilit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현대인들의 잠재적인 정신건강 문제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서비스의 전문화를 통한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정신간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1].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1997년 정신보건법 시행을 통하여 정신건강영역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에 치중되어 오던 정신건강 영역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전환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신보건영역의 핵심 인력인 정신간호사의 역할변화가 요구되었다[2].

정신간호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신

주요어: 정신간호사, 이미지, 타당도, 신뢰도

Corresponding author: Jo, Bom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61452, Korea.
Tel: +82-62-530-4961, Fax: +82-62-233-6325, E-mail: springloveqha@hanmail.net

Received: Oct 30, 2015 | Revised: Dec 25, 2015 | Accepted: Dec 25,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간호사 자신이라 할 수 있다[3]. 정신간호사는 자신을 치료적인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대상자의 신체, 정신, 영적인 면을 다루어야 하고, 또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통한 중재가 정신간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간호사로서의 자기 자신과 역할에 대한 이해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4]. 전통적으로 정신간호영역은 간호영역 중에서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독자적이지 못한 간호영역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5].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인력들도 정신간호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6]. 이는 정신과병동이 일반병동과는 매우 상이한 대상자들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폐쇄된 공간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근무의 특수성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은 졸업을 앞 둔 간호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신과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도록 만든다[7, 8].

정신간호사의 역할에 적합한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정신적인 개념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지가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준거체계가 되기 때문이다[9]. 따라서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은 간호사 자신들이 속한 영역에서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중요하다.

특히 직업에 관련된 태도와 이미지는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개인이 지각하는 이미지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역할 수행 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10]. 간호사들이 지닌 직업적 이미지는 전문적 역할 수행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직에 대해 갖는 바람직한 이미지는 전문직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1]. 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이 지닌 개별적 간호사 이미지는 진로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2]. 이런 이유로 정신간호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향후 진로선택과 실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조사연구[13-17]는 되어왔으나, 분야별 간호사 이미지를 측정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정신간호사의 역할이나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또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정신간호사 이미지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정신간호사 이미지 도구 개발당시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제한점이 있어, 정신병동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도구를 수정하고, 수정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향후 전문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선행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해 개발된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한다.
-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PSYNIS)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PSYNIS)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G시, J시와 J도 소재 정신과 병동을 포함하고 있는 병원 6곳과 정신보건증진센터 6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수락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집방법은 임의표집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수는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구되는 표본 크기로 측정도구 문항수의 약 10~100배 정도면 적합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을 때[18] 최소 330명으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대상자는 총 345명으로 충분하였다.

3. 연구윤리적 고려 사항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C대한 연구 및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승인(IRB No. 12-003)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였고,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비밀보장을 설명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으로 참여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기보고 형식으로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병동이 포함된 6개의 병원에 질문지 35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그 중 답변 누락문항이 많은 질문지 5부를 제외한 345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절차

1) 문헌고찰을 통한 문항 추출

초기에 개발된 도구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총 31개 문항으로 본 연구를 위한 예비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다. 예비 측정도구에는 업무적 특성(activism)을 묻는 하위문항 6개, 의사소통적 특성(communicative competence)을 묻는 하위문항 7개, 개인적 특성(personalism)을 묻는 하위문항 6개, 전문적 특성(professionalism)을 묻는 하위문항 7개, 조직적 특성(coordination competence)을 묻는 하위문항 5개가 포함되어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2) 예비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한 측정도구의 문항 선정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구성된 예비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신간호사 4명, 정신간호학 교수 3인, 정신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임상간호사 5인으로 구성된 총 12명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하였다. 내용 타당도를 ‘전혀 타당하지 않음’ 1점, ‘타당하지 않음’ 2점, ‘보통임’ 3점, ‘타당함’ 4점, ‘매우 타당함’ 5점으로 예비 측정도구를 평점 하도록 하고,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 평점 결과가 4점, 5점인 항목으로 계산하여 문항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가 0.8 미만인 3문항(V2,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독자적인 간호를 수행한다; V6, 임상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잘 다룬다; V12, 의사와 동료임상에서 일한다)은 삭제하여 최종 28문항이 선정되었다.

3)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도구의 확정

본 연구에서는 최종 28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인지 확인하기 위해 KMO (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추출 및 회전방법

은 자료분석방법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4)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개발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LISREL 8.54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적 통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LISREL 8.5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 구성타당도는 문항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요인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요인별 독립성 검증을 위해 4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요인 구조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χ^2 통계량,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의 값을 구하였다.
-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는 전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과 각 하위척도별 Cronbach's α 값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 성별, 결혼상태, 최종학력, 종교, 총 임상경력, 정신과 근무경력, 현재 근무지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40.2 ± 9.52 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95.6%(n=330)로 ‘남성’ 4.4%(n=15)보다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63.5%(n=219)로 ‘미혼’ 31.9%(n=110)과 ‘이혼 및 사별’ 4.7%(n=16)보다 많았고, ‘최종학력’은 ‘전문대학 졸’ 42.6%(n=147), ‘대학원 재학 이상’이 31.3%(n=108), ‘4년제 졸’ 26.1%(n=90) 순이었다. ‘종교’는 ‘있

다’ 71.6%(n=247), ‘없다’ 28.4%(n=98)이었으며, ‘총 임상경력’은 ‘20년 초과’가 30.4%(n=105)로 가장 많았고, ‘정신과 근무경력’도 ‘20년 초과’가 26.7%(n=92)로 가장 많았다. ‘현재 근무지’는 ‘정신과 병동’이 91.3%(n=315), ‘정신건강센터’ 8.7%(n=30)로 조사되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40.2±9.52
Gender	Male	15 (4.4)
	Female	330 (95.6)
Marital status	Unmarried	110 (31.9)
	Married	219 (63.5)
	Divorced or widowed	16 (4.7)
Graduation	College	147 (42.6)
	University	90 (26.1)
	Graduate	108 (31.3)
Religion	Have not	98 (28.4)
	Have	247 (71.6)
Total career period (year)	≤ 1	21 (6.1)
	≤ 3	52 (15.1)
	≤ 5	26 (7.5)
	≤ 10	56 (16.2)
	≤ 20	85 (24.6)
	> 20	105 (30.4)
Career period in psychiatric mental health unit (year)	≤ 1	65 (18.8)
	≤ 3	55 (15.9)
	≤ 5	25 (7.2)
	≤ 10	52 (15.1)
	≤ 20	56 (16.2)
	> 20	92 (26.7)
Workplace	Psychiatric unit	315 (91.3)
	Mental health center	30 (8.7)

Extraction method: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2.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PSYNIS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와(Kaiser-Meyer-Olkin) 측정 결과 .919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공통된 요인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확인 단계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chi^2=3,072.30, p<.00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요인 추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소의 요인추출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되는 주성분 분석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체 문항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1.0 이상의 고유값(Eigen-value)을 가지는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전체문항의 요인부하치 $r=.464\sim.821$ 범위에 있었다. 전체 분산에 대한 4개 요인의 설명력은 사회과학분야의 기준인 60.0%를 넘었다. 즉, 총 누적 변량은 63.3%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설명력은 제1요인이 21.2%, 제2요인 16.8%, 제3요인 13.6%, 제4요인은 11.8%로 나타났다.

4. 요인회전 및 요인명명

본 연구에서는 Varimax방식을 이용하여 직각회전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그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제1요인이 10 문항, 제2요인이 8문항, 제3요인이 6문항, 제4요인이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 1요인에는 정신간호사의 전문직으로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문적 특성(professionalism)’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에는 타인과 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무적 특성(activism)’으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에는 다른 보건의료인과 조화와 협력의 의미를 포함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조직적 특성(coordination competence)’으로 명명하였다. 제4요인에는 간호사 개인의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적 특성(personalism)’으로 명명하였다.

5. 요인별 독립성 검증

요인별 독립성 검증을 위해 4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 $r=.50\sim.73$ 의 범위로 Table 3과 같이 나타나 4개의 하부요인 간에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6.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원자료를 공분산 행렬로 변환하여 모든 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요인의 적재치를 계산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Table 2. PSYNIS Factors based on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N=345)

Items	Factors			
	1	2	3	4
V21 Have a professional knowledge	.813			
V20 Have a professional skill	.791			
V19 Think flexibly	.699			
V24 Have critical thinking	.626			
V28 Have competence as a manager	.625			
V26 Apply the scientific method into practice	.613			
V23 Build a professional therapeutic relationship with clients	.589			
V22 Have the spirit of pride for the profession as a nurse	.587			
V25 Act responsibly	.579			
V18 Have a creativity	.569			
V10 Provid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to family		.740		
V9 Provid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to patients		.720		
V8 Have an interview with family		.699		
V1 Manage patient's hygiene and safety		.686		
V4 Manage symptoms and medication		.633		
V7 Have an interview with patients		.614		
V5 Create a record of evidence based nursing		.590		
V3 Understand and apply various psychological tests		.545		
V29 Work as a team with health care workers			.776	
V31 Work in a mental health nurse organization			.710	
V11 Exchange information with health care team			.653	
V27 Cooperate with other staff			.607	
V30 Organize reasonably and logically the nursing services			.577	
V13 Take advantage of community resources			.540	
V16 Have curious about human				.825
V15 Have a				.774
V14 Have a spirit of service and sacrifice.				.731
V17 Have a bright, warm heart.				.550
Eigen-value	6.0	4.7	3.8	3.31
% of Variance	21.2	16.8	13.6	11.8
Commutative %	21.2	38.0	51.5	63.3

likelihood estimate)으로 변인 간의 관계와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결과 χ^2 통계량은 3,072.30 ($p < .001$), RMSEA는 .05, GFI는 .90, AGFI는 .86, NFI는 .97, 그

리고 CFI는 .98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모든 적합지수의 값이 임계치를 초과하므로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N=345)

Variables	Factor1 r (p)	Factor2 r (p)	Factor3 r (p)	Factor4 r (p)
Factor1	1.000			
Factor2	.676 (< .001)	1.000		
Factor3	.727 (< .001)	.647 (< .001)	1.000	
Factor4	.672 (< .001)	.496 (< .001)	.615 (< .001)	1.000

Table 4. Analysis Model of Measurement Equation

Variables	χ^2	p	RMSEA	GFI	AGFI	NFI	CFI
Standard (threshold)		> .05	Lower	≥ .90	≥ .85	≥ .90	≥ .90
Measurement equation model	1,052.30	< .001	.05	.90	.86	.97	.98

7.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총 28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5였고, 제1요인 전문적 특성은 .92, 제2요인 업무적 특성은 .88, 제3요인 조직적 특성은 .88, 그리고 제4요인 개인적 특성은 .87이었다. 따라서 도구 전체와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70 이상을 나타내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논 의

최근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체제 안에서 현대인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우수한 정신간호사의 양성과 배출이 요구되고 있다.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간호사의 신념과 가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간호학의 전문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PSYNIS)를 실제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개발 시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31문항의 예비 측정도구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시대와 문화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정신간호사 고유의 역할이나 이미지라고 여겨지지 않는 3문항이 제외되어 총 28문항으로 확정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하위요인으로

확정되었으며, 누적변량은 63.3%로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요인별 독립성 검증을 위한 4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서도 $r = .50 \sim .73$ 의 범위로 나타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극단적으로 유사하거나 중복성의 위험이 없고 요인간의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인추출결과 예비 측정도구에서 분류되었던 5 요인 중 '의사소통적 특성'이 '업무적 특성'과 '전문적 특성'으로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4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대한 하부요인의 명명은 문항 내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였다.

제1요인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다',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실무에 과학적 방법을 활용한다', '대상자와 전문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정신간호사로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창의적이다'의 10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첫 번째 요인에는 정신간호사의 전문직으로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문적 특성(professionalism)'으로 명명하였다. 역사적으로 대중매체에서 보여 지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여성들이 하는 일', '미혼', '수동적', '천사', '관대', '순종', '유순' 등의 여성적인 고정관념의 모습이었다[19,20]. 그러나 최근의 이미지는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며[21],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22]. 가장 최근의 인터넷에 나타나는 간호사의 이미지로는 약 70.0%가 지적이고 교육받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50.0%는 '자율성'이 있고, 전통적인 '온화', '천절', '동정' 등의 이미지는 47.0%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23]. 이것은 간호사의 이미지에 변화가 이루

Table 5. Measurement Equation Model of Variance Extracted

Factors	Items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Subtotal Cronbach's Alpha
Professionalism	V21	.788	.911	.92
	V20	.762	.913	
	V19	.718	.915	
	V24	.694	.917	
	V28	.727	.915	
	V26	.684	.917	
	V23	.735	.915	
	V22	.676	.918	
	V25	.661	.919	
	V18	.654	.919	
communication competence	V10	.750	.857	.88
	V9	.753	.858	
	V8	.750	.858	
	V1	.538	.879	
	V4	.611	.873	
	V7	.707	.862	
	V5	.585	.875	
	V3	.522	.881	
Activism	V29	.797	.826	.88
	V31	.600	.865	
	V11	.671	.847	
	V27	.672	.851	
	V30	.681	.848	
	V13	.687	.847	
Coordination competence	V16	.699	.836	.87
	V15	.778	.802	
	V14	.734	.821	
	V17	.656	.852	
Total Cronbach's α				.95

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10문항들도 모두 이러한 정신간호사의 전문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유연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실무에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적용하며,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는 것은 전문가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24]. 따라서 제 1요인에 포함된 10가지 문항들은 정신간호사들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2요인에는 ‘가족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환자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환자와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가족과 개인면담(상담)을 실시한다’, ‘환자의 개인위생 및 안전관리를 한다’, ‘증상 및 약물관리를 한다’, ‘각종 심리검사를 이해하고 적용 한다’, ‘보건의료팀과 정보를 교환 한다’의 문항이 포함되었고, 이 두 번째 요인은 타인과의 정보제공 및 교육, 대상자의 증상 관리, 상담 등의 문항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업무적 특성(activism)’으로 명명하였다. 최신 연구들[25,26]에 따르면 정신간호사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대상자인 정신질환자를 돕고, 나아가 정신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사의 기본적인 활동임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정신간호사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상담과 교육이며[25], 다른 전문간호사와 비교하여 독특한 특성의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상담이다. 이런 측면에서 ‘업무적 특성’은 정신간호사 역할에 있어서 중요하며 정신간호학 교육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다. 특히 상담, 교육, 심리검사, 약물 관리 등과 같이 정신질환 대상자와 가족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제3요인에는 ‘보건의료원들과 팀으로써 일한다’, ‘정신간호사 조직에서 활동한다’, ‘보건의료팀과 정보를 교환한다’, ‘다른 의료진과 협력한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간호업무를

조직한다',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다'로 보건의료팀과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하는 것의 의미하여 '조직적 특성(coordination competence)'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정신과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특별히 더 요구되는 수준의 업무이기도 하다. 즉 정신과 간호사는 다른 전문직들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27]. 이러한 점에서 간호사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정신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들[27, 28]에서 공통적으로 21세기 정신간호사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로 팀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이며, 특히 리더십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전문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자문 및 협력과도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정신간호사의 다양한 역할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과 조직을 개발하고, 통합하며, 또한 연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강화되면서, 정신간호사의 역할에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사회기관과의 연계 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9]. 또한 정신보건 영역의 전문가들과 사례관리 팀으로 협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29]. 이처럼 정신간호사의 이미지의 제 3요인에 나타난 특성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서 더욱 강조되는 부분으로 향후 이 요인에 해당하는 역할은 실제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요인에는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있다',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 '밝고 따뜻하다' 등 4문항이 포함되었고, 이 네 번째 요인은 '개인적 특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정신간호사가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심,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확립, 편견 타파를 위한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들은 정신간호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 정신간호사들의 소진 요인으로 중요하게 꼽히는 원인은 바로 정신과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다[30]. 따라서 정신간호사는 소진되지 않고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교육과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습득될 수 있는 능력들이다[30]. 따라서 정신과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간호학생이나 신규간호사를 위해서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제 4요인에 해당되는 개인적 특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PSYNIS의 요인구조를 잘 드러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통

계량은 1,052.30 ($p < .001$), RMSEA는 .05, GFI는 .90, AGFI는 .86, NFI는 .97, 그리고 CFI는 .98로 모든 적합지수의 값이 임계치를 초과하므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측정방정식 모형의 적합성 평가는 공분산 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는 절차로 χ^2 검증을 이용한 모형평가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χ^2 검증에서는 귀무가설을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표본수가 200개 이상으로 증가하면, χ^2 통계량이 증가하여 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100개 이하인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다. 이러한 χ^2 검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다양한 적합도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합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간명부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등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첫째,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가능한 간명한 모형을 선호하는 RMSEA의 경우, 0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80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한다. 둘째, 절대부합지수인 GFI는 주어진 모형이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회귀분석에서 다중상관치(R^2)와 관련이 있으며, .90 이상일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GFI를 자유도에 의해서 조정해 준 것을 의미하는 AGFI의 경우에는 .85 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기초모형(측정변수사이에 공분산 또는 상관관계가 없는 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이론적인 배경하에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증분적합지수인 NFI와 CFI의 경우 .90 이상일 때 적합한 모형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각 하부요인들의 신뢰도는 제1요인 전문적 특성은 .92, 제2요인 의사소통적 특성은 .88, 제3요인 업무적 특성은 .87, 그리고 제4요인 조직적 특성은 .86이었다. 이처럼 4 요인 모두에서 기준치인 .70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최종 수정된 정신간호사 이미지도구(PSYNIS)는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한 기준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PSYNIS)는 향후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정신간호사들을 대

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간호사 이미지 파악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교육에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도구의 예비 문항은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5가지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3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결과 부적합한 3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28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신간호사 이미지의 측정도구(PSYNIS)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므로 교육, 간호 현장이나 연구 분야에서 정신간호사의 이미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 보건의료 인력들, 일반인에게 정신간호사 이미지 정도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전문적이고 긍정적인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개발에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비교해 볼 수 있는 준거(criterion) 측정값이 존재하지 않아 동시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검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향후 반복연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Gang M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1;20(4):404-13.
<http://dx.doi.org/10.12934/jkpmhn.2011.20.4.404>
- Yang S, Kim PK. The awareness of community mental health connection chronic psychiatric patients with community mental health resource b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0;9(4):587-98.
- Burnard P, Fothergill A.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in Wales: Self reported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J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0;7:523-8.
- Happel B, Martin T, Pinikahana J.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A comparative study of psychiatric nurses from forensics and a mainstream mental health service. *International J Ment Health Nurs*. 2003;12:39-47.
- Brown B, Crawford P, Darongkamas J. Blurred roles and permeable boundaries: the experience of interdisciplinary team working for community mental health staff. *Health Soc Care Community*. 2000;8(6):425-35.
- Halter MJ.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psychiatric nurses: stigma by association. *Arch Psychiatr Nurs*. 2008;22(1):20-6.
<http://dx.doi.org/10.1016/j.apnu.2007.03.003>.
- Rognstad MK, Aasland O, Granum V. How do nursing students regard their future career? Career preferences in the post-modern society. *Nurse Educ Today*. 2004;24(7):493-500.
- Happel B. The role of nursing education in the perpetuation of inequality. *Nurse Educ Today*. 2002;22:632-40.
- Strasen LL. The image of professional nursing strategies for action.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1990. 200 p.
- Roberts DW, Vasquez E. Power: an application to the nursing image and advanced practice. *AACN Adv Crit Care*. 2004;15(2):196-204.
- Gulzar S, Karmaliani R, Vertejee S, Khan KS, Amarsi Y, Macfarlane J.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leader's perceptions of professional empowerment amongst pakistani nurses. *Int J Nurs Educ*. 2015;7(3):247-51.
<http://dx.doi.org/10.5958/0974-9357.2015.00174.9>
- Norman K. How to recruit and retain the next generation of nurses in the UK: young people's views on the image of nursing. In: 1st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rsing, 4-7 May 2015, Athens, Greece, Athens Institute for Education and Research, 111 p.
- Beatrice JK, Suzanne B, Sue N. The image of the nurse on the internet. *Nurs Outlook*. 2007;55(4):182-8.
- Milisen K. The professional self-image of nurses in Belgian hospitals: a cross-sectional questionnaire survey. *Int J Nurs Stud*. 2006;43(1):71-82.
- Milsen K, De Busser T, Kavaert A, Abraham I, Dierckx de CB. The evolving professional nursing self-image of students in baccalaureate programs: a cross-sectional survey. *Int J Nurs Stud*. 2010;47(6):688-98.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09.11.008>
- Miyuki T, Phillip M, Elizabeth M. Impact of the perceived public image of nursing on nurses' work behaviour. *J Adv Nurs*. 2006;53(3):333-43.
- Susanne M. Angels in nursing: images of nursing sisters in a Lutheran context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Nurs Inq*. 2007;14(4):289-98.
- Chung YH. Theory: The development and statistics of measurement tool. *Korean J Nurs Query*. 2005;14(1):88-103.
- Kalisch P, Kalisch B. Nurses on prime time television. *Am J*

- Nurs. 1987;82:264-70.
20. Choi HW, Jung MS. Nursing images appearing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under the 7th national curriculum. *J Korean Acad Nurs.* 2007;37(3):391-400.
 21. Hallam, J. From angel to handmaidens: Changing construction of nursing's public image in post-war Britain. *Nurs Inq.* 1997;5:32-42.
 22. Lusk B. Pretty and powerless: nurses in advertisements, 1930-1950. *Res Nurs Health.* 2000;23:229-36.
 23. Kalisch B, Begency S, Neumann S. The image of the nurse on the internet. *Nurs Outlook.* 2007;35(4):182-8.
 24. Blais K, Hayes JS.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concepts and perspectives. New Jersey: Prentice Hall; 2015. 530 p.
 25. Hunter L, Weber T, Shattell M, Harris BA. Nursing students' attitudes about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Issues Mental Health Nurs.* 2015;36(1):29-34.
 26. Pearson GS, Evans LK, Hines-Martin VP, Yearwood EL, York JA, Kane CF. Promoting the mental health of families. *Nurs Outlook.* 2014;62:225-7.
<http://dx.doi.org/10.1016/j.outlook.2014.04.003>
 27. Laschinger HKS, Borgogni L, Consiglio C, Read E. The effects of authentic leadership, six areas of worklife, and occupational coping self-efficacy on new graduate nurses' burnout and mental health: a cross-sectional study. *Int Nurs Stud.* 2015;52(6):1080-9.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15.03.002>
 28. Pearson GS, Hines-Martin VP, Evans LK, York JA, Kane CF, Yearwood EL. Addressing gaps in mental health needs of diverse, at-risk, underserved, and disenfranchised populations: a call for nursing action. *Arch Psychiatr Nurs.* 2015;29(1):14-8.
<http://dx.doi.org/10.1016/j.apnu.2014.09.004>
 29. Heo EH, Jeong I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referral to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 among nurses in psychiatric hospitals. *Global Health Nurs.* 2015;5(1):9-17.
 30. Sercu C, Ayala RA, Bracke P. How does stigma influence mental health nursing identities? An ethnographic study of the meaning of stigma for nursing role identities in two Belgian Psychiatric Hospital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Nurs Stud.* 2015;52(1):307-16.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14.07.017>